

짐승들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가르치리라

성경말씀: 욥11:1-10, 12:7-25

욥(15:4), 욥기를 통해 무엇을 배우는가? 고통의 의미, 인내, 하나님의 공의, 마귀의 꾀배

욥의 세 친구와 욥의 대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과 미워하시는 사람, 위선자

욥의 세 친구 중 오늘은 소발, 셋 중 가장 나이 어림, 그의 말은 길지 않은데 짜증과 화가 들어 있다.

화를 내야 사람이다. 그런데 낼 때와 참을 때를 구분해야 한다. 욥의 상황에서는 No!

소발의 논쟁(10장)

소발 역시 엘리바스와 빌닷의 주장을 되풀이한다. 끈질기다.

1. 욥은 말이 많고 그 결과 죄가 많다(1). 욥은 답답해서 말을 하는데 이들은 그의 감정을 파악 못함
네 말은 거짓말이요, 조롱하는 말이다(3). 그리고는 욥이 하지도 않은 말을 붙인다(4). 욥은 자신의
순전함을 나타내려고 그런 인상을 주었고 헛소리도 있었으나 이런 주장은 하지 않음. 말다툼의
원인, 문제만 말해야 하는데 그랬을 것이라고 추측하여 하지도 않은 것을 더하는 것, 문제 해결이
안 됨
2. 욥은 하나님을 모른다(5-12). 욥을 조롱함(7), 욥은 하나님의 지혜의 너비, 깊이, 높이를 모른다
(8-9). 자기는 안다는 것임.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은 욥이 아니라 세 친구를 책망함
욥을 자극함: 원래는 더 벌을 받아야 하는데 이 정도 받는 것이다(6).
하나님의 손 안에 모든 사람이 들어 있다(10). 사악한 자는 말할 것도 없다(11).
들나귀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주제 파악을 못하고 지혜롭게 되고자 한다. 네가 바로 그렇다(12).
3.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해라(13-20). 아직 희망이 있다(18). 회개하면 된다(13-14). 상황이 달라진다
(15, 17, 19). 이것은 마치 이렇게 심한 심판을 받을 죄가 없는데도 있다고 하여 사면을 받으라는
말, 어떻게 여기에 순응할 수 있는가? 소발의 마지막 조롱(20): 너는 사악한 자라 안 할 것이다.
4. 욥의 세 친구, 세 사람이 하나같이 같은 주장을 편다. 동정심이 없다. 이것이 종교적인 위선자들

욥의 논쟁(12장)

소발의 주장에 대해 욥은 할 말이 많다. 12-14장. 12장에서는 먼저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 말함
나도 너희만큼 지혜가 있다(2-3). 3절

나는 이런 사람이다(4). 지금 비웃음을 당한다. 멸시를 받는다(5). 너희 주장은 틀린다(6).

세상의 강도들과 악인들을 보라. 얼마나 잘 사는가? 김정은 일당을 보라. 우리 주변에도 너무 많다.

이번의 성 폭력 미투 사건이 터지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위선자, 다행히 터졌기에 이제
조금 알게 되었다. 욥의 말이 맞는다. 의롭다고 잘살고 죄 있다고 못사는 것이 아니다.

더더욱 신약시대 성도들에게는 오직 하늘의 복만 약속되었다(엡1:3). 변영신학 NO! 그래서 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자녀들을 돌아보면서 욥처럼 노심초사하며 바르게 나가도록 가르쳐야 한다.

소발의 주장: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이 조사해서 알 수 없다(11:7-9). 그런데 욥은 7-11절에서 하나님의
창조물을 통해 알 수 있다고 말한다. 짐승과 날짐승과 물고기와 심지어 이 지구(땅, 8절)가 가르친다.
심지어 우리의 숨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이다(10). <짐승들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가르치리라>

1. 연어: 시애틀, 연어 샷강, 연어는 강에서 산란하며 치어(稚魚)는 거의 1년 동안 강에서 살다가 바다로
내려간다. 연어는 자기가 태어난 하천으로 다시 돌아와 알을 낳는 모천회귀(母川回歸) 본능을 갖고
있다. 성장 속도가 빠른 연어는 방류 2년 만에 돌아오기도 하지만, 통상 3년 이상 걸린다. 우리나라에서
도 동해안이나 남대천 같은 강에서 방류하면 꼭 돌아온다. 10월경의 연어 회귀 축제, 완벽하게
2. 딱따구리: 머리로 나무를 쪼아서 구멍을 만들고 벌레를 잡아먹는다. 200종류, 1분에 100회 이상,
하루에 12,000번, 뇌 안에 충격흡수장치, 자동차의 속업소바처럼, 완벽하게 설계가 됨
3. 도마뱀: 게코 도마뱀, 싱가포르 등, 천장에 붙어 다닌다. 무게가 40그램, 12cm, 발바닥의 비밀,
지름이 5-10마이크로미터, 길이 50-100마이크로미터의 강한 털, 1제곱밀리미터에 5,000개
발바닥에는 수백만 개의 강모, 털의 끝에는 주걱 모양의 섬모가 수백 개가 있어서 공기가 빠져나가면서
벽이나 천장에 달라붙을 수 있다. 4킬로그램까지, 미국 렌슬러 공대 연구, 도마뱀보다 4배나

접착력이 강한 테이프 발명, 게코 테이프, 반도체 제조, 무중력 상태 연구

4. 지구: 태양과의 거리, 달과의 거리, 물과 공기, 40-50킬로미터 상공의 성층권(3mm), 자외선 차단
하나님의 권고: 짐승들에게 물어보라(7).

입으로 음식을 맛보듯이 귀로 듣고 말들을 시험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11).

그런데 사람들은 “아니요”라고 말한다. “원숭이에서 나왔습니다.”

무생물에서 생물이 나옵니다. 종이 변합니다. 사람이 신이 될 수 있습니다.

존귀한 사람이라도 깨닫지 못하면 짐승과 같다(시49:20).

특히 진리의 영을 소유한 그리스도인들인 동성애 지지, 종교통합, 공산주의/사회주의정부, 인민 민주주의, 연방제 통일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 묘사(12-25)

욥의 소원: 나이가 들어 지혜로운 자가 이 일을 판단해 주면 좋겠다. 그의 결론은 13절

결론: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권자, 자연계의 모든 일(14-15), 사람의 모든 일(16-25).

1. 자연계의 모든 일 주관(14-15): 천재지변, 홍수, 가뭄, 지진, 산불, 우박

2. 모든 사람이 그분의 손 안에 있다(16-21).

3. 국가들의 흥망성쇠(23-25), 지금은 마지막 때, 노아의 때, 모든 것이 사악하다. 어디서 왔는가, 바벨 탑, 니므롯의 정신, 자기들 마음대로 하려고 한다. 그러나 하나님이 늘 개입하시고 주장하신다.

4. 김정은이 트럼프와 5월에 회담을 한다고 한다. 국내 언론들 대한민국 정부 띄우고 난리

미국의 반응은 싸늘하다: 25년 속았는데 더 속으면 안 된다. 북한에도 아무 반응이 없다.

이번 회담은 최후통첩이다. 미북 회담 카드는 김정은 일당과 주사파 세력의 독배일 가능성이 크다.

해도 힘들어지고 안 하면 더 힘들어진다.

미국의 초지일관 입장: 회담 하겠다고 한 뒤 펜스 부통령의 언급

CVID(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ment) 비핵화: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혹은 돌이킬 수 없는) 핵폐기여야 회담 가능

회담 때부터 완전 핵폐기까지 군사/경제 압박 그대로

샌더스 대변인 발표: 비핵화 조치 없으면 대화 안 한다.

그러므로 회담이 성사되려면 NPT 복귀, IAEA 사찰 승인, 모든 핵무기를 내놓아야 회담 가능

1. 지금까지 북한을 통치한 근본: 핵무기를 만들어 미제 승냥이들을 대적해야 한다.

그러므로 비핵화를 하면 북한 내부의 붕괴 및 반란

2. 안하고 하는 척하면서 속이면 이제 더는 미국이 그냥 두지 않는다.

3. 미국으로서는 최고의 호재를 만남: 비핵화 조건으로 돈을 주는 것은 “우리 민족끼리!”를 주장하며 전 세계와 정반대로 가는 문재인 정부가 알아서 해라.

단 이번에 또 거짓말하면 둘 다 그냥 두지 않겠다.

“한번 속으면 속인 자가 나쁘고, 두 번 속으면 속은 자가 미련하고, 세 번 속으면, 속은 자도 공범”
하나님은 지혜로운 분, 주권자

국가 관련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 주님께 간청하는 것

70년 간 특별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자유 민주주의 시장 경제, 경제 대국

그런데 은혜에 합당하게 살지 못함, 김일성 주사파들이 버젓이 고개 들고 국정으로 좌지우지
“죄송합니다, 잘하겠습니다.” 아이들 정신 교육, 하나님 두려워하겠습니다.

교회가 지역 사회의 빛과 소금, 북한의 2500만 동포의 해방

간절한 기도를 통해 북한 김정은 정권과 대한민국의 김일성 주사파 공산주의 세력의 모든 악랄함이 드러나서
강권적으로 바뀌도록, 이 나라의 자유가 유지되도록

짐승들도 다 안다: 배은망덕하면 망한다. 북한을 보고도 추종하면 망한다고. 깨닫는 영을 주실 것을
원한다.